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3년 12월 원자재시장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세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추세반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원자재시장에 봄이 찾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은 수급, 지정학적 이슈, 날씨 등의 요인으로 강세를 나타냈지만 비철금속과 금은 양적완화 축소 정책 우려로 인해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탄올 시장은 급락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주변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옥수수 가격 약세와 가솔린 소비감소 등으로 에탄올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분간 에탄올 가격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으로 보인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대표적인 원자재지수인 CRB지수(CRB Index)와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2013년 12월에 모두 전월에 비해서 상승하였다. CRB Index는 280.4로 마감하여 전월대비 2.3%, S&P GSCI는 631.1을 기록하여 2.6% 상승하면서 2013년 연말 원자재시장은 강세로 마감하게 되었다.

* hwanilpark@gmail.com, 02-3780-8220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1.12	2012.12	2013.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305.1	295.3	280.4	-5.0	2.3
S&P GSCI	642.7	640.1	631.1	-1.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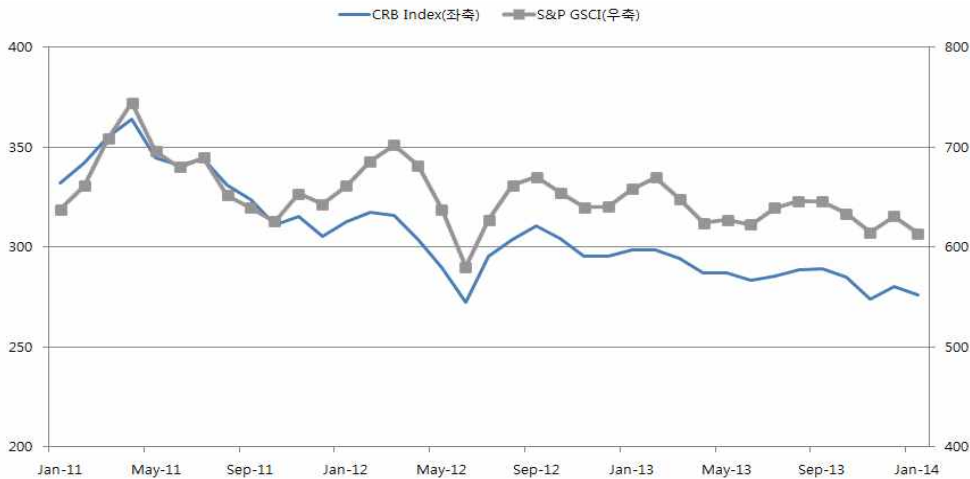
주: 변화율은 2013년 12월 평균지수의 전년동기(2012년 12월)와 전월(2013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하지만 전년 동월대비 두 지수는 모두 하락했으며 2011년 12월에 비하면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데 2011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장기적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RB Index는 2012년 12월 295.3이었으나 2013년 12월까지 1년동안 5.0% 하락했으며, S&P GSCI는 2012년 12월 640.1에서 1년 동안 1.4% 하락하였다.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CRB Index와 S&P GSCI 월간평균 모두 추세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CRB Index는 2011년과 2012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300 이상을 유지했었으나 2013년 이후 3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 하락하고 있다. S&P GSCI는 CRB Index에 비해 하락폭이 작은 편이지만 2011년 중반 700 이상으로 상승한 이후 600~700 사이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적 하락세는 원자재 수요를 견인해왔던 중국의 경제성장이 부진한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주: 2014년 1월 월평균 지수는 1월9일 기준
 자료: KoreaPDS

결과 예전과 같은 수요기인형 가격상승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선진국과 기타 신흥국의 경제도 여러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쉽게 수요증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원자재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에너지는 WTI원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WTI 원유는 2013년 12월 97.9달러/배럴로 전월대비 4.2%, 전년대비 10.9% 상승하였고 천연가스는 2013년 12월에 4.3달러/백만BTU를 기록했는데 전월에 비해 무려 17.3%, 전년에 비해서는 24.4%로 큰 폭으로 올랐다. 브렌트유도 110.8달러/배럴로서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1.5% 상승하는 등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 12월에 주요 에너지 품목가격 상승에는 미국의 수급 불균형이 크게 기인한다. 미국 정제소들의 유지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정제 수요가 증가하여 원유수요가 늘고 동시에 원유재고는 감소하였다. 미국 정제소 가동률은 91.5%로 4주 전에 비해 2.9%포인트 상승했고 12월 13일 기준 미국 원유재고는 1달전에 비해 4.2%가 감소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수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등 원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OPEC의 생산량이 저조한 가운데, 리비아, 남수단, 이집트 등 지역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과 P5+1의 핵협상 임시 합의로 지정학적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석유증산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가장 상승률이 큰 천연가스는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중인 사상 초유의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12월 중 매주 감소하는 추세인데 12월 20일 기준 3조 710억큐빅피트로 전년대비 15.9%, 5년 평균에 비해서는 7.4% 감소하여 가격 상승을 전인하고 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1.12	2012.12	2013.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98.6	88.3	97.9	10.9	4.2
브렌트유	107.7	109.2	110.8	1.5	2.7
천연가스	3.3	3.4	4.3	24.4	17.3

주: WTI원유, 브렌트유는 달러/배럴, 천연가스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3년 12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2년 12월)와 전월(2013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농축산물 중에서는 대두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2013년 12월 대두는 부셸당 1,330센트로 전월에 비해 2.5% 상승했다. 옥수수도 상승했는데 부셸당 428센트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2% 상승을 나타냈다. 생육우도 파운드당 134센트로 11월에 비해 1.5% 상승을 기록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1.12	2012.12	2013.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606	721	428	-40.6	1.2
대두	1,145	1,455	1,330	-8.6	2.5
생육우	121	132	134	1.5	1.5

주: 옥수수, 대두는 센트/부셸, 생육우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3년 12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2년 12월)와 전월(2013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대두와 옥수수 등 곡물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 중이다. 옥수수는 무려 40.6% 하락했으며 대두의 하락폭은 8.6%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 곡물가격 약세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두는 남미의 공급량 증가전망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가격하락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의 수요지속, 12월 후반기의 남미의 고온 건조한 날씨 등 요인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 옥수수는 중국의 미인가 미국산 유전자조작 품종에 대해 하역거부 조치가 시장에 전반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에탄올 의무사용량 기준 하향정책으로 인해 수요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12월에는 남미의 비우호적인 날씨로 인해 바닥권에 있던 옥수수 가격을 지지하게 되었다.

축산물 가운데 생육우 가격의 급등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년 6월 파운드당 118센트를 기점으로 지속 상승하여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 2013년 초지의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어린 육우의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생우의 수급이 차질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육을 촉진하는 호르몬(베타 아고니스트 질맥스)의 사용금지 조치도 생우 공급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비철금속 및 귀금속시장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 비교적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알루미늄은 2013년 12월 1,879달러/톤으로 전월에 비해 1.1% 하락하였고 전년에 비해서는 13.6% 급락하였다. 2013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금은 12월 1,224달러/온스로서 전월대비 4.0%, 전년대비 27.4% 하락을 기록했다. 구리는 7,203/톤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9% 상승했지만 전년대비 9.5% 하락을 나타냈다.

비철금속과 금시장은 다른 품목에 비해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중동과 미국의 수급, 농산물은 날씨가 가격 변화의 주요 원인이지만 비철금속과 금은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달러가치와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제전망에 따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다. 2013년 12월부터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선진국의 비교적 견고한 경제지표로 인해 양적완화 축소 악재를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구리 재고 재비축 수요가 견고하다. 또한 필리핀, 칠레 등 지역에서 공급차질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서 구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신규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추세이다. 금 시장은 향후 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보다 빠르고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여지가 작아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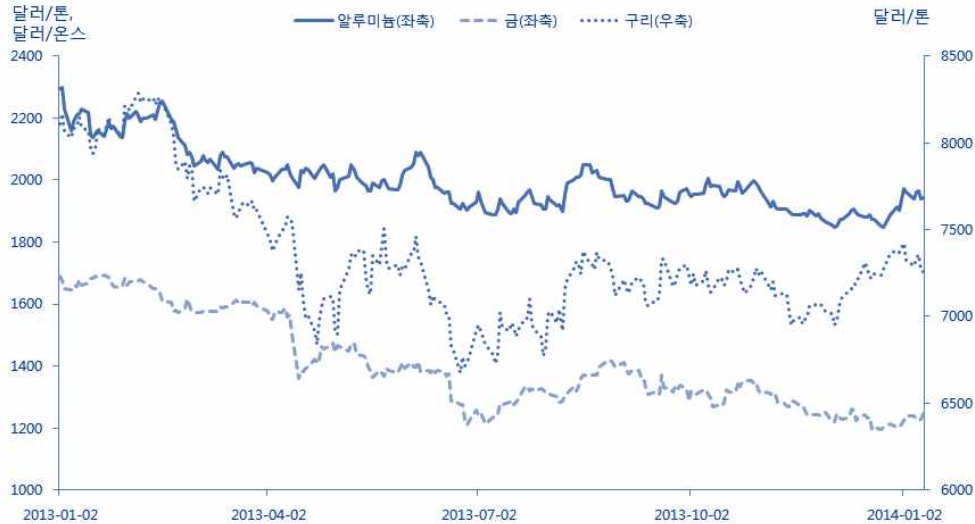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1.12	2012.12	2013.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	2,175	1,879	-13.6	-1.1
구리	7,568	7,963	7,203	-9.5	1.9
금	1,645	1,686	1,224	-27.4	-4.0

주: 알루미늄, 구리는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3년 12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2년 12월)와 전월(2013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주: 알루미늄은 달러/톤, 금은 달러/온스
 자료: KoreaPDS

2. 에탄올시장 동향

■ 단기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을 모색

2013년 하반기에 급변동을 보였던 에탄올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급락은 11월까지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바닥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다. 12월 에탄올 가격은 갤런당 190센트를 중심으로 변동을 하고 있으며 11월의 저점 165센트/갤런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9월 급락 이전의 가격인 갤런당 200센트 이상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가격에 대한 전망은 밝지가 않다. 옥수수 가격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가솔린 소비가 주춤한 상황으로 에탄올 재고가 다시 증가하여 에탄올 가격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가을 에탄올 시장이 위축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나 재고가 1,500만배럴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가격이 지지가 되자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표 5.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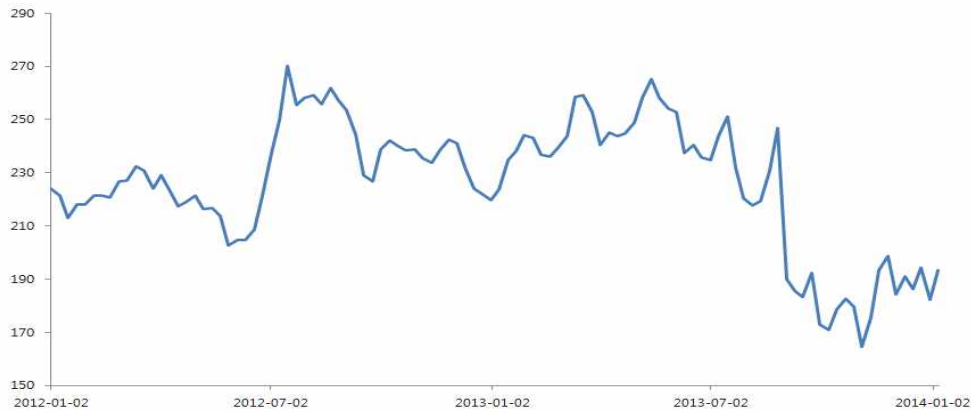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가솔린소비 대비 에탄올 생산비율(%)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셸)
2013/9/27	875	8,527	10.3	13.3
2013/10/25	911	9,054	10.1	13.8
2013/11/29	913	8,873	10.3	13.8
2013/12/6	944	8,348	11.3	14.3
2013/12/13	928	9,016	10.3	14.1
2013/12/20	926	9,176	10.1	14.0
2013/12/27	913	8,893	10.3	13.8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하지만 최근 미국 강추위로 가솔린 소비가 감소하면서 에탄올 재고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월 6일 하루 94만배럴까지 증가했던 에탄올 생산은 이후 감소하여 12월 말에는 91만배럴로 축소되었다. 에탄올 재고량은 11월을 바닥으로 증가하여 12월말에는 1,560만배럴에 달한다. 가솔린 소비량은 12월 27일 기준 889만배럴/일로서 1주일 전에 비해 3.1% 감소했다. 이와 같이 생산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라는 악재와 함께 에탄올 시장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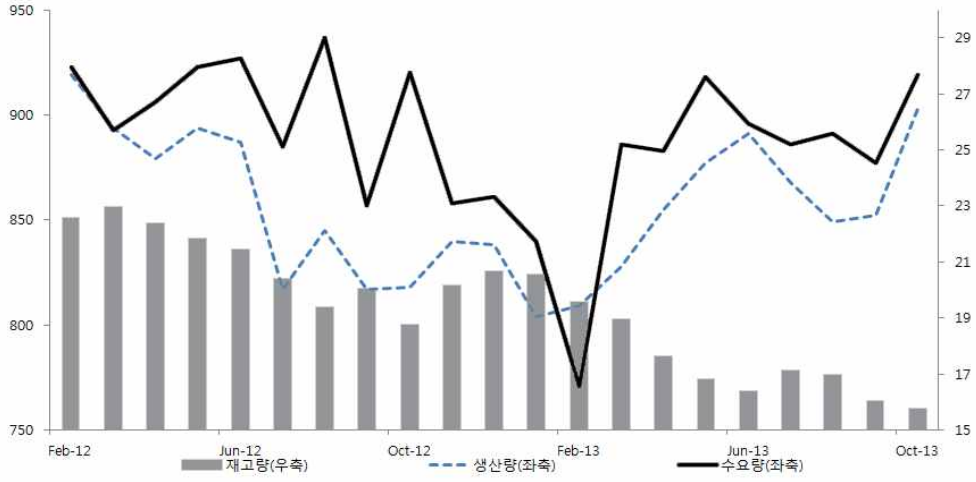
단위: 센트/갤런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단위: 생산량 및 수요량: 천 배럴/일, 재고량: 백만 배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